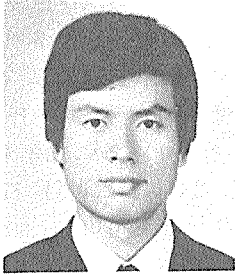


石油危機가 韓國經濟에 미친 影響



李 銅 焄

〈經濟企劃院 投資計劃課·行政事務官〉

I. 序說

지난 20年 동안 우리 經濟는 4次에 걸쳐 經濟開發計劃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高度成長過程을 에너지 측면에서 考察해본다면 60年代에는 低價格·過剩供給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확보가 용이하였기 때문에 成長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나 70年代에는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高度成長에 일단 制動이 걸렸었지만 第1次 石油波動은 그런대로 무난히 克服하여 77年·78년에 다시 好況을 맞았으나 이는 또다시 第2次 石油波動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그 餘波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 國內의 景氣不振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本橋에서는 兩次的 石油危機의 背景과 그 展開過程을 먼저 간단히 살펴 본 다음 이러한 石油危機가 우리 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 보고 여기서 얻은 教訓을 바탕으로 또 다시 발생할 지 모르는 第3의 石油波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政策이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第1次 石油危機

1. 背景

第1次 石油波動의 背景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石油需要와 供給間의 심각한 불균형과 資源民族主義의 高潮라 할 수 있다. 60年代 過剩供給·低價格으로 石油需要가 急伸張하여 70年代에 들어 서면서 需給이 逼迫化 되었고 특히 美國의 경우 石油依存度가 심화되어 國內 石油供給能力이 감퇴됨에 따라 심각한 에너지危機에 직면하게 되어 닉슨大統領은 73年 4月에 에너지敎書를 발표하여 石油輸入制限措置를 철폐하여 世界石油市場은 더욱 需給이 逼迫해졌다. 또한 Major에 의한 公示價格 引下를 계기로 產油國은 60年 9月 OPEC을 結成하였으며 71年 테헤란 協定과 72年の 제네바 協定을 통해 公示價格의 인상을 실현시키는 등 Major의 폭리에 불만을 품고 Major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第4次 中東戰爭의 勃發은 第1次 石油波動의 하나의 起暴劑 役割을 하였다.

2. 第4次 中東戰의 勃發과

石油武器化

73年 10月 6日 第4次 中東戰爭이 勃發하자 中東產油國들은 10月 16日 쿠웨이트에서 OPEC 石油相會議를 열고 原油의 公示價格을 一방적으로 70% 인상하고 9月の 生産実績을 基準으로 最低 5%의 產油削減을 단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17日 对이스라엘戰爭을 위한 수단으로 石油를 武器化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美国과 네덜란드에 대한 石油禁輸措置를 단행하였고 대부분의 消費國에 대한 原油供給을 削減함으로써 消費國들의 原油確保競争을 유발시켜 原油價格은 더욱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세에 便乘하여 產油國들은 73. 12. 23 다시 原油價格을 배럴당 \$5. 119에서 \$11. 651로 대폭 인상하기로 一방적으로 결정하고 74. 1. 1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두차례의 原油價格 引上으로 公示價格(아라비아 라이트 API 34° 기준)은 4次 中東戰의 勃發前의 배럴당 \$ 3.011에서 \$11. 651로 거의 4배 정도 上昇되었으며 이로써 高油價時代가 개막되었고 世界經濟를 沈滯의 늪으로 빠뜨렸다. <그림-1>은 第1次 石油波動에 따른 油價의 上昇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Ⅲ. 第2次 石油危機

1.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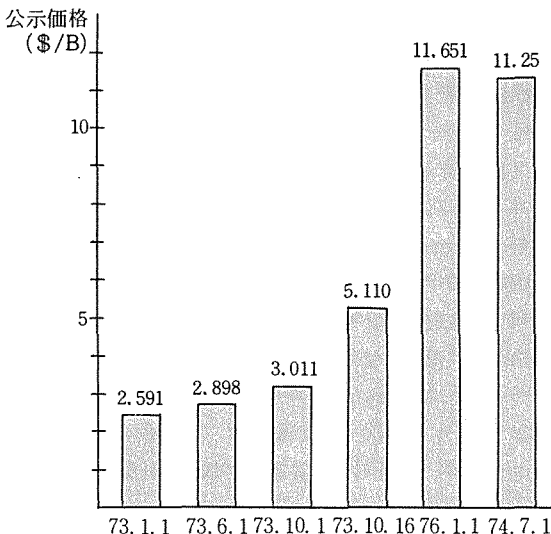
第1次 石油波動으로 인한 石油不足 現狀은 中東產油國의 生産活動回復으로 급격히 회복되어 갔으며 消費國의 에너지節約 및 産業活動의 停滯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供給過剩現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OPEC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敎모히 公示價格을 유지시켜 왔으며 76年 이후 世界景氣의 回復으로 石油消費가 다시 증가하여 몇 차례의 價格引上을 시도했으나 OPEC國間의 의견대립으로 78年末까지 原油價格은 安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石油의 兪見量이 生産量을 하회함에 따라 石油可採年數는 저하되어 사우디, 쿠웨이트 등 主要中東產油國들은 產油上限(production ceiling)을 設定하고 資源保護政策을 강화함에 따라 石油需給의 基調는 逼迫化의 方向으로 움직여 왔으며 이러한 시기에 伊란革命이 勃發하여 第2次 石油波動이 시작되었다.

2. 伊란革命의 勃發과 2次 石油危機의 發生

78年末부터 시작된 伊란의 政情不安과 79年의 伊란革命 勃發로 伊란의 產油量이 감소됨에 따라 世界 石油需給의 均衡이 붕괴되자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等 中東產油國들이 供給不足을 보충하기 위해 增産을 시작함으로써 石油供給情勢는 다소 완화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伊란事態이후 石油供給 不足現狀이 발생하자 과거 한차례 石油波動을 경험한 바 있는 日本, 西獨 등 西歐諸國들은 79年 初부터 現物市場에 진출하여 경쟁적으로 原油를 구입하여 備蓄하기 시작하였고 自製하고 있던 美国까지 越冬準備을 위한 備蓄때문에 뒤늦게 現物市場에 뛰어들어 角逐을 벌임으로써 石油需要는 加速度로 증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UAE, 쿠웨이트, 리비아 등은 78年 第52次 OPEC總會에서 결정된 14.5%의 단계적 油價引上을 앞당겨 실시하였으며 Major와 석유업자들이 投売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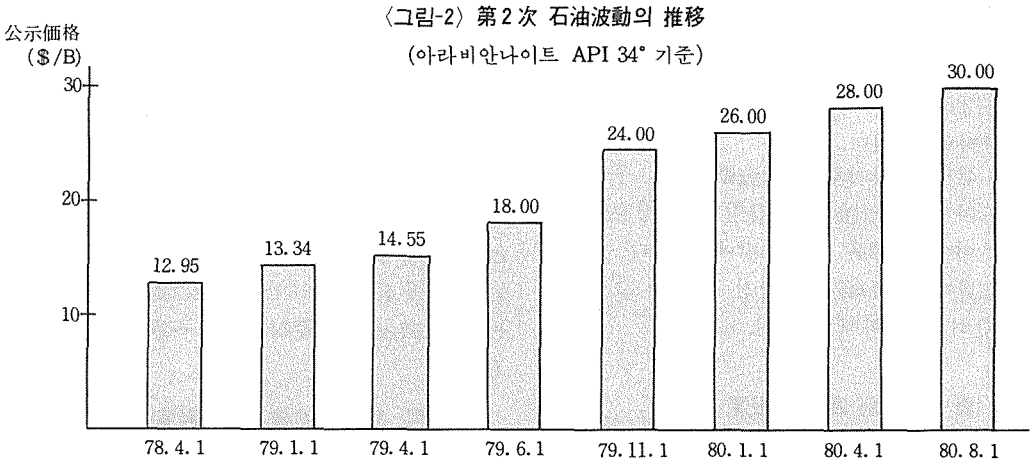
<그림-1> 第1次 石油波動의 推移

(아라비아라이트 API 34° 基準)



을 벌이기 시작함으로써 現物市場價格이 폭락하기 시작하였고 全産油國들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73년의 油價 상승으로 배럴당 10弗을 넘어섰던 油價는 불과 6年만에 20弗線을 돌파하였고 現物市場에서는 40

弗을 呼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石油供給의 不足現象은 여전히였다. 이렇게 發端된 第2次 石油波動의 內容은 <그림-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IV. 石油危機가 韓國經濟에 미친 影響

1. 序 言

70年代 두번의 石油危機가 韓國經濟에 미친 影響은 다음에서 詳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왜 그토록 큰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점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당시 우리의 에너지 消費構造가 지나치게 石油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0年代와 60年代의 供給過剩과 低價格을 바탕으로 世界 各國이 그러 했듯이 우리도 가히 “流体에너지 革命”이라 일컬을 만큼 石油需要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50年代, 60年代의 薪炭, 石炭 中心의 에너지 消費構造는 점점 石油中心으로 바뀌어 62년에 9.8%에 불과했던 石油依存度는 72년에 53.5%에 달하게 되었으며 78년에는 다시 63.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 經濟가 石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石油價格의 急上昇으로 인한 충격역시 클 수밖에 없었다.

둘째, 당시 大部分의 原油를 石油波動의 震源地인 中東地域에서 도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原油導入狀況을 보면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72년의 경우 거의 全量을 中東地域에 의존하였고 특히 쿠웨이트, 사우디, 이란에서만도 總導入物量의 93.3%를 도입하고 있었다. '78년의 경우도 72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導入物量중 95.8%를 上記 3個國에 의존

(表-1) 에너지源別 消費構造 (%)

	石炭	石油	水力	原子力	薪炭	計
1962	36.8	9.8	1.7	-	51.7	100.0
1967	40.0	26.8	1.7	-	31.5	100.0
1972	27.0	53.5	1.5	-	17.9	100.0
1973	29.5	55.0	1.2	-	14.3	100.0
1974	29.8	54.5	1.8	-	13.5	100.0
1975	29.2	56.9	1.5	-	12.4	100.0
1976	29.3	58.8	1.5	-	10.5	100.0
1977	28.0	61.8	1.0	0.1	9.1	100.0
1978	25.9	63.5	1.2	0.5	7.9	100.0
1979	27.3	62.9	1.3	1.8	6.7	100.0
1980	29.9	61.3	1.1	2.0	5.7	100.0
1981	32.9	58.7	1.5	1.6	5.4	100.0

資料：主要經濟指標 1982. EPB

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石油危機가 世界景氣를 沈滯시켜 이것이 다시 우리 經濟與件에 한 어려움으로 作用하였다는 점이다. 石油波動은 韓國經濟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經濟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世界景氣의 침체를 가져와 각국은 자국의 經濟保護를 위해 保護貿易主義를 強化하는 등 우리의 對외적 經濟與件을 더욱 惡化시켰다. <表-3>는 石油危機를 전후한 세계 주요국의 經濟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石油波動 당시 우리의 經濟構造의 特性上 油價의 갑작스런 상승이 國民經濟에 미친 影響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油價上昇이 國民經濟에 미친 영향을 <그림-3>에서 간단히 도식화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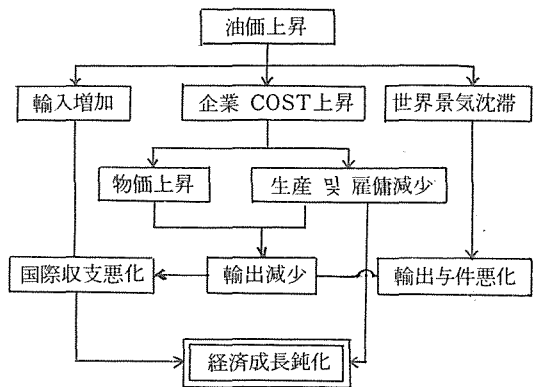
<表-2> 國別 原油導入比重 (단위: %)

年度	國別	계	쿠웨이트	사우디	이란	카프지	기 타
1972		100.0	50.4	39.8	3.1	6.0	0.7
1973		100.0	18.8	61.4	4.4	15.4	-
1974		100.0	16.8	65.4	2.9	14.9	-
1975		100.0	45.5	44.0	0.8	8.7	1.0
1976		100.0	39.6	39.8	10.8	8.2	1.7
1977		100.0	32.1	54.0	10.6	0.6	2.7
1978		100.0	30.5	57.6	7.7	2.3	1.9
1979		100.0	32.3	53.3	10.7	0.4	3.3
1980		100.0	24.8	61.2	8.5	3.2	2.3
1981		100.0	21.2	57.4	7.9	1.7	11.8

資料: 動力資源部

油價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原油輸入代錢을 증대시켜 이는 다시 總輸入額의 增加를 가져오며 이러한 輸入額의 증가는 우리의 경우 經常收支赤字의 幅을 증가시켜 國際收支를 惡化시켜 결과적으로 國民經濟의 沈滯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油價上昇은 企業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費用增加는 가격에 전가되어 國民經濟 전반에 걸친 物價上昇을 야기시켜 결국 COST PUSH INFLATION을 초래하여 對外的인 면에서 國際競爭力을 惡化시켜 輸出減少를 가져와 國際收支赤字 → 經濟成長鈍化를 초래하게 된다. 企業의 費用上昇은 다른 한편으로는 生産과 雇傭의 감소를 초래하여 對內적으로는 공급부진으로 인한 景氣沈滯와 對外的으로는 輸出減少 → 國際收支惡化 → 景氣沈滯로 연결된다.

<그림-3> 石油危機가 韓國經濟에 미친 影響



<表-3> 石油危機를 前後한 主要國의 經濟狀況

區分	國別	美 國						英 國						프 랑 스					
		73	74	75	79	80	81	73	74	75	79	80	81	73	74	75	79	80	81
經濟成長率(%)		5.8	-0.6	-1.1	3.2	-0.2	2.0	5.8	-1.5	-1.8	2.1	-2.6	2.7	5.4	3.2	1.8	3.5	1.2	0.2
失業率(%)		4.9	5.6	8.5	5.8	7.1	7.6	2.6	2.6	3.9	5.4	6.8	10.5	2.6	2.8	4.1	5.9	6.3	7.6
都壳物價上昇率(%)		9.1	15.6	10.8	11.1	13.5	9.2	7.4	22.6	22.2	12.2	16.3	10.7	21.6	14.8	-4.7	13.3	8.8	10.8
經常收支(10億\$)		7.1	2.3	18.3	1.4	3.7	6.6	-2.6	-7.9	-3.8	-2.8	6.1	7.4	-0.6	-5.8	0.0	1.1	-7.8	-9.6
區分	國別	日 本						台 灣						西 獨					
		73	74	75	79	80	81	73	74	75	79	80	81	73	74	75	79	80	81
經濟成長率(%)		8.8	-1.2	2.4	5.6	4.2	2.9	12.8	1.1	4.2	8.1	6.6	5.5	4.9	0.4	-1.7	4.4	1.8	-0.3
失業率(%)		1.3	1.4	1.9	2.1	2.0	2.2	1.3	1.5	2.4	1.3	1.2	1.4	1.3	2.6	4.7	3.8	3.8	5.6
都壳物價上昇率(%)		15.8	31.4	3.0	7.3	17.8	1.7	22.7	40.6	-5.1	13.8	21.6	7.6	6.7	13.3	4.7	4.8	7.5	7.7
經常收支(10億\$)		-0.1	-4.7	-0.7	-8.8	-10.7	4.8	0.6	-1.1	-0.6	0.2	-1.0	0.5	4.6	10.2	3.9	-6.1	-15.9	-9.3

資料: 韓國經濟指標 1982. EPB

뿐만아니라 油價上昇은 世界各國의 經濟에 影響을 주어 世界景氣를 침체시켜 國內經濟의 對外市場 與件의 惡化를 가져와 輸出不振 → 國際收支惡化 → 經濟成長 鈍化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油價上昇은 國民經濟의 全般에 걸쳐 상호 影響을 미치게 되며 中國적으로는 높은 物價上昇과 經濟成長의 鈍化라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相互作用의 過程은 論外로 하고 일단 나타난 結果를 중심으로 「經濟成長」「國際收支」「物價」「産業生産 및 雇傭」「에너지 消費」를 中點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經濟成長의 鈍化

石油危機가 韓國經濟에 미친 傾向을 한마디로 摘要해서 표현한다면 이는 經濟成長의 둔화라고 할 수 있다. 經濟成長 指標야말로 한 나라의 生産, 雇傭, 物價 등 전반적인 經濟狀況을 종합적으로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그림-4>에서 一瞥할 수 있는 바와 같이 73年의 경우 14.9%의 높은 經濟成長을 달성하였으나 이해 年末에 시작된 1次 石油波動으로 74년에는 8.0%, 75년에는 7.1%로 經濟成長이 둔화되었다. 第2次 石油波動이 시작된 79年의 경우 파동이 年中에 발생하여 79年 自體의 成長率도 78年의 大好況이었던 11.6%에서 크게 떨어진 6.4%였으며 이는 다시 80年의 兪作과 겹쳐 史上 類例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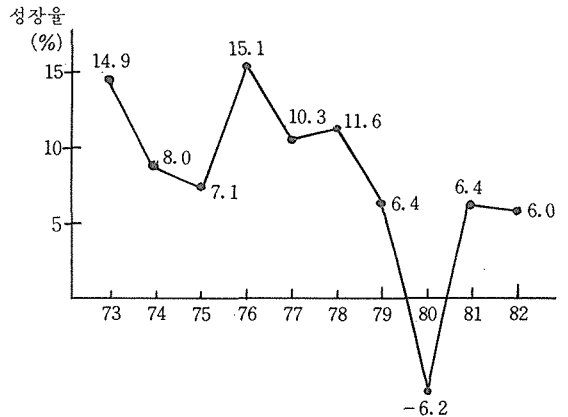
는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를 分期別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次 石油波動의 傾向은 75年 1/4分期를 轉換點으로 하여 回復局面으로 접어들었고 第2次 石油波動은 80年 2/4分期를 轉換點으로

〈表-4〉 産業別 附加價值 成長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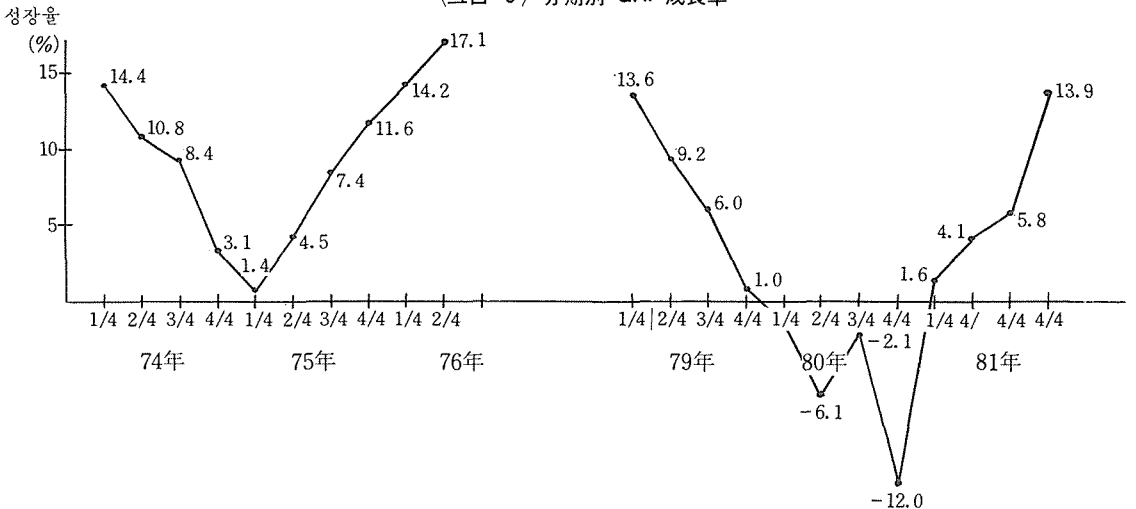
	農林水産業	鎔工業	SOC 및 其他서어비스
1973	6.3	28.6	13.6
1974	6.7	15.2	5.0
1975	5.3	12.6	5.1
1978	- 4.0	20.0	13.5
1979	6.7	9.4	4.1
1980	-22.0	- 1.1	- 3.4
1981	21.7	7.0	2.4

資料：主要經濟指標 1982. EPB

〈그림-4〉 年度別 GNP成長率



〈그림-5〉 分期別 GNP成長率



하여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결국 4/4分期에 가서야 실질적으로 回復局面에 접어들었다.

産業別로 成長率 趨勢를 <表-4>에서 보면 石油危機는 鈹工業과 SOC 및 其他「서어비스」部門의 成長을 크게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1次 石油危機의 경우 鈹工業部門은 73년의 28.6%에서 74년에는 15.2%로 75년에는 다시 12.6

%로 떨어졌으며 SOC 및 기타「서어비스」부문도 73년의 13.6%에서 74년에는 5.0%로 하락하였다. 第2次 石油危機에서도 鈹工業部門은 78년의 20.0%에서 79년에는 9.4%로, 80년에는 -1.1%로 계속 감소하였고 SOC 및 기타「서어비스」부문도 78년의 13.5%에서 79년에는 4.1%로 80년에는 -3.4%로 역시 급격히 하락하였다.

<表-5> 年度別 國際収支

(단위: 百万달러)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I. 經常 収 支	-622.5	-847.5	-371.2	-308.8	-2,022.7	-1,886.9	-313.6	12.3	-1,085.2	-4,151.1	-5,320.7
1. 輸 出(f.o.b)	882.2	1,132.3	1,676.5	3,271.3	4,515.1	5,003.0	7,814.6	10,046.5	12,710.6	14,704.5	17,214.0
2. 輸 入(f.o.b)	1,804.2	2,178.2	2,250.4	3,837.3	6,451.9	6,674.4	8,405.1	10,523.1	14,491.4	19,100.0	21,598.1
貿易 収 支	-922.0	-1,045.9	-573.9	-566.0	-1,936.8	-1,671.4	-590.5	-476.6	-1,780.8	-4,395.5	-4,384.1
3. 貿易 外 受 入	496.8	433.7	550.3	849.4	837.8	880.6	1,642.7	3,027.0	4,450.1	4,826.2	5,363.3
4. 貿易 外 支 給	377.5	455.9	517.4	782.3	1,146.1	1,322.8	1,714.5	2,761.0	4,226.1	5,020.8	6,749.2
貿易 外 収 支	119.3	27.8	32.9	67.1	308.3	-442.2	-71.8	266.0	224.0	-194.6	-1,385.9
5. 移 転 去 来(純)	180.2	170.6	169.8	190.1	222.4	226.7	348.7	222.9	471.6	439.0	449.3
II. 長期 資本 収 支	501.0	512.0	521.0	666.3	946.4	1,178.3	1,371.2	1,312.7	2,166.3	2,662.9	1,856.5
6. 借款 및 外國 投資(純)	535.9	556.3	524.0	591.1	732.6	1,059.8	1,302.2	1,495.5	2,052.8	1,627.3	1,895.5
7. 其 他(純)	-34.9	-44.3	-3.0	75.2	213.8	118.5	69.0	-182.8	113.5	1,035.6	-39.0
III. 其 礎 収 支(I+II)	-121.5	-335.5	149.8	357.5	-1,076.3	-708.6	1,057.6	1,325.0	1,081.1	-1,488.2	-3,464.2
IV. 短期 資本 収 支	122.4	134.6	-16.3	84.0	-45.4	679.5	356.5	21.4	-1,171.0	843.6	1,944.5
V. 誤 差 및 漏 落	-5.1	13.1	30.1	18.8	27.9	-121.5	-240.5	-31.7	-312.0	-328.7	-369.9
VI. 綜合 収 支(III~V)	-4.2	-187.8	163.6	460.3	-1,093.8	-150.6	1,173.6	1,314.7	-401.9	-973.3	-1,889.6
VII. 金 融 計 定	4.2	187.8	-163.6	-460.3	1,093.8	150.6	-1,173.6	-1,314.7	401.9	973.3	1,889.6
8. 負 債	83.5	173.1	40.7	-35.9	972.9	632.9	364.0	407.9	865.7	1,868.5	2,860.9
9. 資 産(增-)	-79.3	14.7	-204.3	-424.4	120.9	-482.3	-1,537.6	-1,722.6	-463.8	-895.2	-971.3
9. 外 換 保 有 額(增-)	-34.0	49.0	-159.3	-340.4	-15.2	-492.2	-1,419.1	-1,345.7	-630.7	-771.0	-863.3

<表-6> 原油 導入 量과 導入 單 價

	原油 導入 量		原 油 導 入 額(千\$)				導 入 單 價(\$/B)			
	(千BBL)	增加率(%)	C & F	增加率(%)	F O B	增加率(%)	C & F	增加率(%)	F O B	增加率(%)
1972	92,581	8.4	221,077	26.7	176,320	19.1	2.38	13.9	1.90	9.8
1973	103,210	11.5	305,158	38.0	253,020	43.5	2.95	23.9	2.45	28.9
1974	112,703	9.2	1,104,833	262.1	1,013,522	300.6	9.80	232.2	8.99	266.9
1975	117,795	4.5	1,328,152	20.2	1,241,214	22.5	11.28	15.1	10.54	17.2
1976	132,407	12.4	1,580,003	19.0	1,492,011	20.2	11.93	5.8	11.27	6.9
1977	154,549	16.7	2,000,075	26.6	1,890,104	26.7	12.94	8.4	12.23	8.5
1978	166,532	7.8	2,173,680	8.7	2,042,764	8.1	13.06	0.9	12.27	0.3
1979	185,153	11.4	3,330,608	53.2	3,153,352	54.4	17.96	37.5	17.00	38.5
1980	182,861	-1.4	5,654,191	69.8	5,431,423	72.2	30.92	72.2	29.70	74.7
1981	182,814	-0.03	6,502,498	15.0	6,235,717	14.8	35.57	15.0	34.11	14.8

資料: 主要經濟指標 1982. EPB.

3. 國際收支의 惡化

石油危機의 傾向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原油價格의 상승에 의한 輸入額의 증가로 인한 國際收支의 惡化라 하겠다. 石油危機를 中心으로 한 당시의 國際收支 狀況을 <表-5>에서 보면 74年의 경우 73年과 비교할 때 輸入額이 3,837.3 百万弗에서 6,451.9 百万弗로 약 1.7배 증가하여 貿易收支 赤字가 566.0 百万弗에서 1,936.8 百万弗로 約 3.4배 급격히 증가하여 經常收支 赤字幅의 증가요인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72年, 73年의 모처럼의 國際收支 黒字가 약 10億弗의 國際收支赤字로 바뀌는 요인이 되었다. 第2次 石油危機가 시작된 79年의 경우도 78年과 비교할 때 貿易收支 赤字가 1780.8 百万弗에서 4395.5 百万弗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80年에도 계속하여 貿易收支 赤字의 增加要因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貿易收支 赤字增加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原油價格의 상승에 따른 原油導入額의 증가였다. <表-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原油導入 單價는 C & F 基準으로 73年의 2.95 \$/B에서 74年에는 9.80 \$/B로 232%가 증가하였으며 또 79年의 17.96 \$/B에서 80년에는 30.92 \$/B 로 72%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原油導入額도 73年의 305,158 千弗에서 74년에는 1,104,833 千弗로 약 262% 증가하였고 80年의 경우도 79년에 비해 원유도입량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입 약은 약 70% 증가하였다.

이러한 原油導入額이 總輸入額과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表-7>에서 보면 總輸入額에 대한 비중은 73年의 7.19%에서 74년에는 16.13%, 75년에는 18.26%로 또 79의 16.38%에서 80년에는 25.36%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GNP에 대한 비중은 역시 73年의 2.32%에서 74년에 6.10%로 75년에는 6.56%로 그리고 79年의 5.74%에서 80년에는 10.01%로, 81년에는 10.26%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별 輸入額 增加率을 <表-8>에서 살펴보면 74年의 경우 73年보다 總輸入額은 61.6% 증가하였으나 中東地域에서의 수입은 277.6%가 증가하였으며 80年의 경우 79년에 비해 總輸入增加率은 9.6%에 불과하였으나 中東地域으로부터의 輸入 增加率은 68.8%였다. 이처럼 中東地域으로 부터의 輸入額 增加率이 높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石油波動으로 인한 原油導入額의 上昇때문이었다.

이러한 原油價 上昇이 주원인이 되어 國際收支面에서 수입증가로 인한 經常收支 赤字의 증대와 輸入構造의 惡化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入單價指數, 外貨稼得率 및 換準에 큰 영향을 미쳤다.

輸入單價指數의 增加率은 74年과 80年의 경우 각각 55.5%, 26.9%로서 그폭이 컸고. 外貨稼得率도 1次 石油危機인 74年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工產品의 경우 1次 石油危機 동안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換準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74年과 80년에 각각 21.8%,

<表-7> 年度別 原油導入額과 그比重

	GNP (A)	總輸入(B)	原油導入額(C)		C/A(%)	C/A(%)	
			增加率(%)	增加率(%)			
1972	10,254	2,522	5.3	221	23.5	2.15	8.76
1973	13,152	4,240	68.1	305	38.0	2.32	7.19
1974	18,127	6,852	61.6	1,105	262.3	6.10	16.13
1975	20,233	7,274	6.2	1,328	20.2	6.56	18.26
1976	27,423	8,774	20.6	1,580	19.0	5.76	18.01
1977	35,168	10,811	23.2	2,000	26.6	5.69	18.50
1978	49,155	14,972	38.5	2,174	8.9	4.42	14.52
1979	58,029	20,339	35.8	3,331	53.2	5.74	16.38
1980	56,460	22,292	9.6	5,654	69.7	10.01	25.36
1981	63,345	26,134	17.2	6,502	15.0	10.26	24.88

36.3%씩 上向 調整하였다.

4. 높은 物價上昇

物價上昇은 企業의 에너지비용 및 原油나 石油製品을 원료로 하는 石油製品, 石油化學製品의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이는 결국 製品價格에 轉嫁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中心으로 한 物價指標은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表-10>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73년에 사상 유례없는 한 자리 수의 物價上昇률을 기록하였으나 1次 石油波動으로 74년에는 도매물가가 42.1%, 消費者 物價가 24.3%로 급등하여 75년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次波動으로 80년의 경우도 도매물가 상승율이 38.9%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26.7%로 크게 상

승하였다. 또한 綜合物價指數라 할 수 있는 GNP「디플레이터」상승율도 74년에 29.6%, 80년에 25.8%로 他年度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輸入物價指數 增加率 또한 74년과 80년의 경우 각각 26.8%와 27.6%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物價上昇의 원인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는 油價引上으로 인한 국내 石油製品價格의 上昇과 石油化學製品의 가격상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의 石油製品價格 상승율을 <表-11>에서 보면 第1次 石油危機에는 73. 12. 4에 石油製品價格을 평균 30% 인상하였고 74. 2. 1 다시 82%라는 大幅引上을 단행하

<表-10> 年度別 物價上昇率 (%)

	72	73	74	75	78	79	80	81
GNP 디플레이터 上昇率	15.6	13.2	29.6	24.7	20.6	19.3	25.8	17.5
都 売 物 價 上 昇 率(1)	13.8	6.9	42.1	26.6	11.7	18.8	38.9	22.5
消 費 者 物 價 上 昇 率(1)	11.7	3.2	24.3	25.3	14.4	18.3	28.7	23.3
輸 入 物 價 指 數 上 昇 率	5.2	23.8	26.8	-5.8	4.4	26.7	27.6	4.0

註(1): 年平均 基準임.

<表-8> 地域別 輸入 增加率 (%)

	計	아 시 아	中 東	유 럽	아 메 리 카	오 세 아 니 아	아 프 리 카
1972	5.3	4.9	41.2	7.3	- 5.4	29.7	87.8
1973	68.1	74.3	19.9	26.0	88.0	97.5	52.2
1974	61.6	46.1	277.6	29.9	51.1	44.9	67.5
1975	6.2	- 6.1	33.3	32.2	6.2	46.9	15.6
1976	20.6	26.2	22.7	31.8	7.7	8.9	81.3
1977	23.2	25.4	23.4	23.4	19.8	33.5	7.2
1978	38.5	47.5	13.2	67.8	27.3	69.6	-44.8
1979	35.8	20.1	43.4	53.1	52.9	27.8	167.8
1980	9.6	- 6.3	68.8	-24.8	7.9	9.8	- 1.1
1981	17.2	11.3	0.1	28.9	29.6	31.6	78.8

資料: 韓國經濟指標. 1982. EPB.

<表-9> 輸入單價, 外貨稼得率 및 換率

	單 位	72	73	74	75	78	79	80	81
輸入單價指數	1975=100	46.8	62.5	97.2	100.0	105.8	129.2	163.9	171.7
(增加率)	%	1.7	33.5	55.5	2.9	5.6	22.1	26.9	4.8
外貨稼得率	%	60.2	58.8	57.2	57.9	67.1	67.2	67.9	67.8
(工產品)	%	55.2	53.3	52.1	50.2	63.3	63.6	64.9	65.1
換 率(1)	원 / \$	398.90	397.50	484.00	484.00	484.00	484.00	659.90	700.50

註(1): 換率은 韓銀集中基準率, 時點은 年末基準임.

〈表-11〉 国内石油製品 價格變動推移

變動日字 變動內容	71		72		73		74			75	77		78	79		80		
	6.2	8.20	7.21	8.8	12.4	2.1	4.8	10.7	12.7	11.21	5.20	7.1	1.28	3.7	7.10	1.29	8.24	11.19
揮発油(普)	9.91	11.99	14.04	15.87	20.31	35.54	39.63	-	41.41	45.09	47.02	59.54	61.68	67.54	107.39	171.21	196.41	249.91
揮発油(高級)	11.79	14.27	16.71	18.88	24.17	42.30	47.16	-	49.28	53.66	55.95	71.34	73.91	80.93	128.68	205.15	252.50	321.28
燈油	13.04	15.78	18.48	20.88	26.73	46.78	46.78	46.78	55.20	60.10	62.67	50.91	52.74	57.75	84.49	139.49	160.02	180.12
軽油	9.66	11.69	13.69	15.47	19.80	34.65	38.63	30.42	38.39	41.80	43.59	43.21	45.85	50.21	78.33	124.88	142.41	160.30
ジェット油	8.40	10.16	11.59	13.10	16.77	29.35	32.73	39.27	53.88	58.66	61.17	56.95	58.96	64.79	103.02	164.24	188.42	212.09
ナフタ	4.70	5.69	6.49	7.79	12.58	22.02	28.63	-	37.74	41.09	42.85	42.10	43.62	47.93	76.21	121.50	139.38	149.89
軽質重油	8.09	9.79	11.17	12.45	15.94	27.90	31.11	-	37.55	40.88	42.63	42.42	44.72	48.93	77.80	124.04	142.30	160.17
重油	7.15	8.65	9.87	11.00	14.08	24.64	27.47	-	36.70	39.96	41.67	41.36	43.17	47.21	75.06	119.67	137.29	154.53
병커 C油	4.79	5.80	6.38	7.11	9.10	17.47	23.58	25.55	35.58	38.74	40.40	40.56	42.02	45.93	73.03	116.43	133.57	149.69
溶剤	15.92	19.26	21.98	24.84	31.80	55.65	62.05	39.08	124.82	135.90	141.71	126.82	131.39	143.87	228.75	364.70	418.38	470.93
아스팔트	7.30	8.83	10.08	11.39	14.58	25.52	28.45	-	39.03	42.50	44.32	43.54	46.46	51.05	81.17	129.41	148.46	167.11
프로판 (一般用, 원/kg)	35.10	35.10	42.47	49.69	63.60	111.30	124.10	-	219.66	239.16	249.38	202.13	156.36	158.47	251.97	401.72	460.85	512.01
프로판 (서울市用, 원/kg)	25.60	25.00	25.00	29.25	37.44	65.52	73.05	-	219.30	140.78	146.80	118.99	92.05	93.29	148.33	236.48	271.29	301.40
부탄 (一般用, 원/kg)	25.10	30.37	330.37	35.53	45.48	79.59	88.74	-	167.54	182.42	190.22	150.85	133.04	153.00	243.27	387.85	444.94	505.96
부탄 (서울市用, 원/kg)	20.00	20.00	20.00	23.40	29.95	52.41	58.44	-	110.34	120.14	125.28	99.35	87.62	100.76	160.21	255.42	293.02	333.19
平均引上率	19.5%	21%	14%	13%	30%	82%	22.3%	-	34.0%	8.8%	4.275%	V.A.T 조정	3.67%	9.5%	59%	59.43%	14.72%	12.56%

註：稅前工場度 價格基準

였으며 74年 한해 동안에만도 무려 4番의 引上措置를 하였다. 第2次 石油危機 동안에는 79.7. 10에 59%의 石油製品價格引上을 하였으며 80. 1. 29에 다시 59.43%의 引上을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石油化學製品의 價格 상승을 <表-12>에서 보면 74年과 80年 경우 石油化學製品의 도매물가지수가 전체지수보다 높았으며 그 상승을 또한 73年 74年 및 79年, 80年의 경우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에서 光熱費部門의 物價指數로 74年과 80年의 경우 全体消費者 물가지수보다 높았고 그 상승을 또한 73年, 74年 및 78年~81年 기간중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石油化學製品 및 光熱費部門의 價格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원유가 상승이 國內 石油製品價格의 引上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石油化學製品의 원료인 나프타가 價格의 引上은 직접적으로 石油化學製品의 價格인상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5. 産業生産 및 雇傭의 鈍化

유가 상승은 企業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企業

生産을 저하시키며 이는 다시 雇傭에 영향을 미친다.

<表-13>에서 産業生産指數를 보면 73年의 호황기에는 전산업의 경우 33.4%, 제조업의 경우 35.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차석유위기의 영향으로 74年, 75년에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가 79년에 第2次 石油危機로 다시 下落하기 시작하여 80년에는 産業生産指數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産業生産의 둔화는 특히 에너지價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바 <表-14>에서 보면 제조업의 경우 在庫增加率이 73年과 78년에 각각 -0.7%, -1.3%였으나 74年, 79년에는 각각 45.9%, 29.9%로 급상승하였고 80년에는 37.1%로 더욱 상승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稼動率指數도 74年, 75年 및 79年, 80년에 각각 -0.6%, -3.7% 및 -7.1%, -10.4%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製造業附加價值率도 74年의 21.9%, 80년에 20.7%로서 다른 年度에 비해 낮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産業生産의 둔화를 投資率 例面에서

<表-12> 石油化學製品價格과 光熱費上昇率

	單位	72	73	74	75	78	79	80	81
都賣物價指數 (石油化學製品)	1975=100	52.0	55.6	79.0	100.0	136.5	162.1	225.2	275.8
消費者物價指數 (光熱費)	"	44.1	48.2	99.6	100.0	111.8	148.2	239.2	285.7
都賣物價上昇率 (石油化學製品)	%	13.8	6.9	42.1	26.6	11.7	18.8	38.9	22.5
消費者物價上昇率 (光熱費)	"	4.3	9.3	106.6	0.4	3.5	32.6	61.4	19.4
	"	11.7	3.2	24.3	25.3	14.4	18.3	28.7	23.3
	"	10.1	5.7	37.9	14.9	25.9	25.1	33.8	29.7

註: 年平均 基準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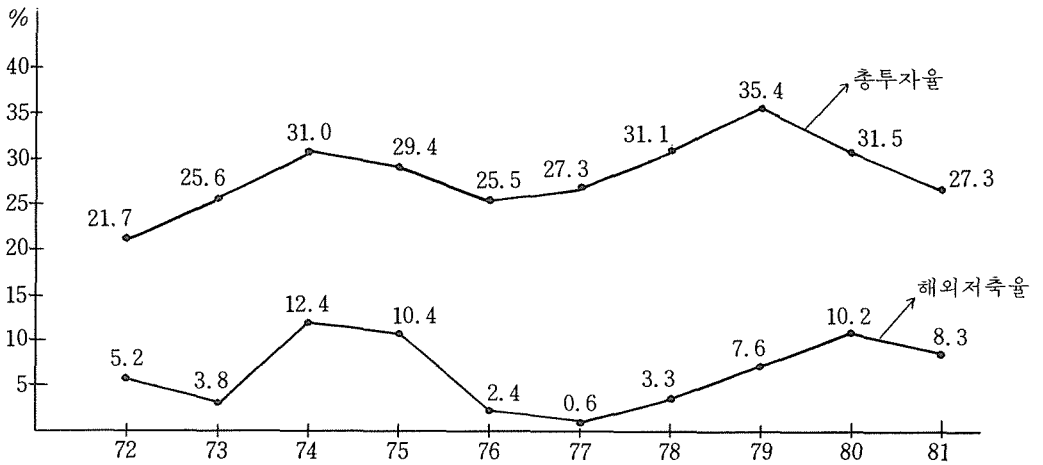
<表-13> 年度別 産業生産指數

	72	73	74	75	78	79	80	81
産業生産指數 (75=100)								
全産業	49.4	65.9	84.0	100.0	191.2	213.5	209.8	231.7
製造業	47.8	64.8	83.7	100.0	196.4	220.1	215.9	238.8
産業生産指數增加率 (%)								
全産業	14.6	33.4	27.5	19.0	22.9	11.7	- 1.7	10.4
製造業	16.3	35.6	29.2	19.5	23.8	12.1	- 1.9	10.6

〈表-14〉製造業 指數

	72	73	74	75	78	79	80	81
在庫指數 (1975=100)	60.5	60.1	87.7	100.0	121.9	158.4	217.2	229.1
(增加率%)	18.6	- 0.7	45.9	14.0	- 1.3	29.9	37.1	5.5
稼動率指數 (1976=100)	88.7	92.9	92.3	88.9	111.7	103.8	93.0	94.3
(增加率%)	4.7	4.7	- 0.6	- 3.7	8.1	- 7.1	- 10.4	1.4
附加價值率 (%)	25.5	26.7	21.9	22.1	24.6	25.2	20.7	20.7

〈그림-6〉年度別 投資率



〈表-15〉年度別 雇傭狀況

	單位	72	73	74	75	78	79	80	81
就業者數	千名	10,559	11,139	11,586	11,830	13,490	13,664	13,706	14,048
(增加率)	%	4.9	5.5	4.0	2.1	4.3	1.3	0.3	2.5
失業者數	千名	499	461	494	510	442	542	749	661
(增加率)	%	4.8	- 7.6	7.2	3.2	- 13.5	22.6	38.2	- 11.7
失業率	%	4.5	4.0	4.1	4.1	3.2	3.8	5.2	4.5

〈表-16〉에너지消費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GNP增加率 (%)	5.8	14.9	8.0	7.1	15.1	10.3	11.6	6.4	- 6.2	6.4
에너지消費 (千TOE)	22,307	25,627	26,087	27,644	30,306	34,371	38,252	43,463	44,115	45,885
에너지消費增加率 (%)	6.9	14.9	1.8	6.0	9.6	13.4	11.3	13.6	1.5	4.0
石油消費 (千TOE)	11,943	14,086	14,320	15,728	17,817	21,250	24,287	27,358	27,034	26,916
石油依存度 (%)	53.5	55.0	54.9	56.9	58.8	61.8	63.5	62.9	61.3	58.7
石油消費增加率 (%)	13.1	17.9	1.7	9.8	13.3	19.3	14.3	12.6	- 1.2	- 0.4
에너지消費/GNP彈性值	1.19	1.00	0.23	0.85	0.64	1.30	0.97	2.13	-	0.63
石油消費/GNP彈性值	2.25	1.20	0.21	1.38	0.88	1.87	1.23	1.97	-	-

보면(그림-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투자율은 7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76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第2次 石油波動이 시작된 79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海外貯蓄率 역시 74년의 경우 經常収支赤字로 12.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2次 石油波動期인 79년, 80년의 경우 總投資率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海外貯蓄率は 상승하였다.

이러한 産業生産의 둔화는 또다시 雇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3년의 경우 前例없는 호황으로 失業者數는 72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실업율도 72년의 4.5%에서 4.0%로 감소하였으나 74년과 75년의 경우 다시 실업율이 4.1%로 증가하였으며 78년에도 中東進出에 따른 호황으로 실업율이 3.2%까지 감소하였으나 79년의 2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失業者가 22.6%나 증가하여 다시 3.8%로 失業者率이 증가하였으며 80년에는 실업자가 38.2%나 증가하여 실업율이 5.2%로 크게 상승하여 불경기의 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6. 에너지 消費의 減少

두번의 石油危機는 國民經濟에 여러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石油波動이 國民經濟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石油價格의 급상승은 石油가 無限定 값싸게 공급될 것으로 믿고 50년대와 60年代를 통해 石油에의 絶對的 의존으로 치달고 있던 消費國들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려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節約과 脫石油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需要管理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공급면에서는 代替에너지 開發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石油危機는 우리의 에너지 消費構造를 재점검하고 에너지 消費節約을 中心으로 합리적인 에너지利用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평가도 가능하다.

(表-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번의 石油危機

를 중심으로 우리의 에너지消費 증가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74년 1.8%, 80년 1.5%) 1차 석유과동 이후 일단 石油消費增加率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나, 79년 이후에는 脫石油政策에 힘입어 石油消費量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石油依存度도 1차 석유위기인 74년에 일단 주춤하였으나 다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79년 이후는 에너지 消費節約과 代替推進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GNP에 대한 에너지消費 彈性值도 74년에 0.23, 75년에 0.85로, 76년에 0.64로 나타나 1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의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으며 GNP에 대한 石油消費 彈性值도 74년~76년 기간중에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도 1차 석유위기가 지나면서 다시 강화되어 79년의 경우 彈性值가 약 2정도까지 상승하였으나 2次 石油危機로 80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V. 結 語

또다시 第3의 石油危機가 올 것인가에 대해 肯定論과 否定論의 두 견해가 있으나 일단은 肯定論이 지배적인 것 같다. 1次 石油危機는 전반적인 石油需給의 불균형이 원인이었고 2次 石油危機는 主要國의 物量確保競争이라는 투기적 행위에 의한 일시적인 需給 不均衡이 그 원인이었다. 第3의 石油危機는 어쩌면 石油의 質에 따른 需給不均衡, 즉 需要의 輕質化와 供給의 重質化의 傾向에 의한 需給 不均衡이 원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第3의 石油危機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에너지政策은 첫째 脫石油政策을 적극 추진하여 石油依存度를 감축하고, 둘째 石油의 장기안정적 確保를 위해 原油導入物量 및 導入先을 多邊化시켜야 하며 셋째, 에너지消費節約 및 代替를 강력 추진하여 에너지需要를 효율적으로 管理해 나가야 할 것이며 넷째, 需要의 輕質化와 供給의 重質化 傾向을 고려하여 精油社의 重質油 改善施設의 설치를 유도하도록 石油製品 價格構造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